

Date preached: Sept 13th 2026

7 여호와의 □□ 광야의 □□ 걸 곧 술길 □□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 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 가 이르되 □□ □□ 여주인 □□ □□ 파하여 도망하니이다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라 11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12 그가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차 있고 모든 손이
 그를 찰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하나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어떻게 여가서 파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힘이라 14 아러므로 그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아브람이 하갈이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Review – Gods' covenant with Abram – part 2

Today we will look at the fascinating story surrounding the birth of Abram's son Ishmael. However before we do let's briefly review the key moments from last week's sermon. As I'm sure you recall we finished chapter number 15.

Chapter 15 tells us all about the covenant that God quite literally cut with Abram. Today we refer to this particular covenant as the Abrahamic Covenant. The account begins some time after Abram's successful rescue of his nephew Lot. One evening whilst in his tent Abram receives the word of the Lord via a vision. God reassures him that he will act as his shield. He need not fear any reprisals from the eastern kings. Furthermore God tells him that he will provide for him a natural heir. He will not have to leave his inheritance to a servant. God then instructs him to go outside the tent and take in the night sky. The black canvas of night glistened with a multitude of stars. Count them if you are able God tells him. Your descendants will be like these stars. Abram then demonstrates his faith by believing all that the Lord has told him.

After this we move onto the actual blood covenant ritual. God instructs Abram to bring five different animals (a three-year-old heifer, female goat, and ram along with a turtledove, and a young pigeon). These are to be used in the formal sealing (cutting) of a covenant. The cow, goat and sheep are cut in two with each half placed opposite the other. The birds are not cut in half.

It is at this point in the narrative that Abram falls into a deep trance like sleep. Whilst in this state God reveals to him what will happen to his descendants. God tells him that his people (Israel) will be taken to a strange land and whilst there will be oppressed. They will be forced to serve their foreign masters for a period of 400 years. We now know that this is a reference to the Egyptian exile. After 400 years has expired God will redeem His people and judge their oppressors. Abram however will not experience any of this personally. This is a future event that will take place long after Abram has gone to be with his fathers. Abram we are told will die in peace after living a long life. We know that he died aged 127.

We are then told about how God manifested in order to conduct the covenant ritual. He appeared we are told represented by a smoking oven and a burning torch. These two items passed between the carcasses of the severed animals which effectively sealed the covenant. As I told you last time it was usual for both parties to walk between the carcasses. But because this was an unconditional covenant only God passed between them. There were no commitments placed upon Abram. God would fulfil His promises irrespective of what Abram or his descendants did.

The chapter concludes with God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 land He was giving to Abram and Israel. The real extent of the promised land bears little resemblance to the miniscule piece of real estate Israel occupies today. The land God's people will one day occupy stretches all the way from

the River Shihor (part of the Nile Delta) in the south to the River Euphrates in the north. It stretches from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west to the Persian Gulf in the east. As I said last week Historically speaking, Israel has never possessed the full extent of this promised territory. But one day they will.

Today we will begin chapter number 16. It tells us in very graphic terms what can happen if we lose patience with God and decide to take matters into our own hands. Spoiler alert, things don't go well.

복습 - 아브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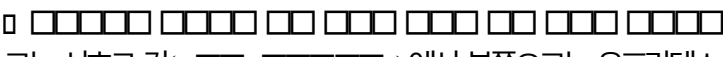
오늘은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의 탄생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설교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5 장을 마쳤습니다.

15 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Abrahamic Covenant)이라고 부릅니다. 이야기는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브람은 자신의 장막에서 환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람의 방파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는 동방 왕들의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몸에서 나올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종은 후계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장막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철쭉 같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있으면 세어 보아라. 네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 후, 피의 언약 의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섯 마리의 동물(세 살 된 암소, 암염소, 숫양 그리고 산 비둘기와 잡비둘기 새끼 한 마리)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동물들은 언약을 공식적으로 봉인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소, 염소, 양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 보게 놓지만, .

바로 이 시점에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낯선 땅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압제를 당할 것이며, 400 년 동안 이방 지배자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집트 유배를 가리킵니다. 400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압제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죽은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아브람이 장수하여 평화롭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127 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 의식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연기 피는 화로와 불타는 햇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이 반으로 잘린 짐승들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양쪽 당사자들이 사체 사이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나 그의 후손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15 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언급하고 끝맺습니다. 약속의 땅의 실제 범위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차지하게 될 땅은 남쪽으로는 시호르 강()에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에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약속된 땅 전체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이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6 장을 시작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인내심을 잃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As a child my family and I enjoyed many nice days out. Most weekends we would drive out into the country and enjoy a walk with the dog or a picnic if the weather was fine. On one particular day we

decided to try a new spot. It was a place my father had heard about called Walton Pool. It was he told us a small pool nestled in a secluded forest setting. It sounded perfect. He had a vague sense of where it was and how to reach it. This remember took place long before satellite navigation and Google Maps were invented. So off we went following a series of ever smaller country roads. Eventually we found ourselves on a dirt track on the top of a hill. Realising that we had erred in some way we began to descend. As we did so someone noticed a little track branching off to the left. They suggested somewhat hopefully that it might lead directly to Walton Pool. It was possibly a detour to the pool. So we turned and followed the track. As it descended it got narrower and steeper. But much more alarmingly it began to angle inwards to the point that the car felt as if it was about to roll over on its side. Amid great shrieks of terror my father ordered us all out of the car whilst he managed to steer the vehicle to safety at the bottom of the hill. It was all very exciting but quickly quelled our desires to ever find Walton Pool.

Many years later thinking back to that memorable detour I am reminded of something the preacher Vance Havner once said.

“The detour is always worse than the main road.”

How true that is. In chapter 16 we have the account of a “detour” taken by Abram and Sarai. They didn't come close to rolling their car but they did create a very painful situation. It was also a detour that resulted in very long term and serious consequences. The antipathy between the Arabs and Jews stretches all the way back to this incident. It demonstrates to us that the results of disobedience and sin often produce long term unanticipated consequences. Let's get into the story.

어렸을 적, 우리 가족은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차를 몰고 시골로 나가 개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날씨가 좋으면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월튼 풀(Walton Pool)이라는 곳에 대해 들었는데, 그곳이 오판 숲 속에 있는 작은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의 위치와 가는 길을 어렵듯이 알고 계셨습니다. 위성 내비게이션이나 구글 지도가 발명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있는 비포장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왼쪽으로 갈라지는 작은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이 월튼 풀로 바로 이어지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희망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웅덩이로 가는 우회도로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갔습니다. 길이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위험했던 것은 차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마치 옆으로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비명 소리가 요란해졌고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하셨고, 간신히 차를 몰아 언덕 아래로 안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고, 그 일로 월튼 풀에 가고 싶은 마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그 때의 잊지 못할 우회로를 떠올리니 설교자 밴스 해브너 목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회로는 언제나 대로보다 더 안좋다 The detour is always worse than the main road.”

정말 맞는 말입니다. 16 장에는 아브람과 사라가 우회로를 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가 전복될 뻔한 아찔한 순간과는 다르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그 우회로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은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불순종과 죄의 결과가 종종 예상치 못한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 Now Sarai, Abram's wife, had borne him no children. And she had an Egyptian maidservant whose name was Hagar.

Let's take a moment to set the scene. In chapter 15 Abram experienced a divine vision. He was told by God that he was going to be blessed with a natural heir. A son that would come from his own

body. This was wonderful news and exactly what he and Sarai longed to hear. Abram was 75 years old so time was of the essence. Chapter 16 picks up about 10 or 11 years later. Abram is now 86 years old. But far more worrying is that the much anticipated child has still not arrived. As we often note God's timing and our sense of timing do not always align. We want the things we want and we want them right now. God, who always knows best sometimes makes us wait until He is ready. That is clearly the case here.

Moses reminds us that although Abram and Sarai had been blessed by God in many ways they had not yet been blessed with a child. Sarai was still barren. From our vantage point we would tell Sarai to wait and be patient. God has made you a promise. He will not fail to fulfil it. But Sarai had become impatient. She decided therefore, very inadvisably to take matters into her own hand. One commentary I consulted said that since God had not specified her as being the mother (only that Abram was the father) that she was just using her initiative. She was attempting to “second guess” God. I'm not going to be so charitable. I think she just made a foolish and reckless decision. As we progress through the account we will see that the guilt and blame is shared equally between Abram and Sarai. It may have been her idea but Abram is far from being blameless. He should have shut it down immediately.

So what does Sarai propose? We are told here about an Egyptian maidservant called Hagar. She will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story. It's likely that she came into their service during their sojourn in Egypt. Her name is most appropriate. It means “to be a fugitive,” “to flee,” or “flight.” Let us read on and discover the full extent of Sarai's plan.

1 아브람의 아내 □□□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 이름은 하갈이라

잠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5 장에서 아브람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람과 사래가 간절히 바리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람은 75 세였기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16 장은 그로부터 10 년 또는 11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은 이제 86 세가 되었는데도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아 걱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다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브람과 사래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 전히 불임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래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러나 사래는 조금하졌고 어리석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한 주석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의 어머니가 사래라고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아브람이 아버지가 될 거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 □□ □□ □□ □□□□ □□□□.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려 했다고 제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고 □□□□.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브람과 사래에게 똑같이 책임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래의 생각이 었을지라도 아브람 역시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래는 무슨 제안을 했을까요? 여기서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들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하녀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 이름은 “도망자가 되다”, “도망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읽고 사래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 So Sarai said to Abram, “See now, the LORD has restrained me from bearing children. Please, go in to my maid; perhaps I shall obtain children by her.” And Abram heeded the voice of Sarai. 3 Then Sarai, Abram’s wife, took Hagar her maid, the Egyptian, and gave her to her husband Abram to be his wife, after Abram had dwelt ten years in the land of Canaan.

Here in verses two and three we have Sarai’s evaluation of the situation and her proposal to remedy it. God, according to her assessment has prevented her from having children. It's hard to gauge the tone but it runs perilously close to expressing disappointment, or even blame towards God. It feels as if she is abandoning her faith which must always rest in the wisdom of God and instead turning towards human wisdom. Her plan is as follows. Since God is not going to give me a child maybe I

on God to be the ultimate judge in this matter, going over Abram's head, in a sense. That will be enough to provoke Abram into action as the next verse will reveal.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는 모욕은 당한 것이 많으니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나니 너의 종을 당한 대로 하라

아브람과 하갈의 결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래가 비릇던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잘 된 일이라 아게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해 잠깐 과연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긍정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죄를 짓는 행동은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아원을 짓기 위해 은행을 털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육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곧 후회하게 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갈은 이제 "공식적인"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아이를 낳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갈이 그렇게 빨리 임신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브람이 아니라 사래 자신에게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사래의 잘못이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우월감을 느꼈고 사래를 알잡아 보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녀의 가치나 존엄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슬프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은 종종 멸시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멸시하다 despise"는 뜻의 단어는 '칼랄 qalal', '인데, 이는 "저주하다 curse"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2:3). 하갈은 당시에 불임 여성을 대하던 일반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임신에 성공한 그녀는 여주인을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사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사래의 생각이었고, 그녀가 제안했었습니다. 하갈의 멸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고 상처받았으며, 하갈을 토로합니다. 여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아브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갈이 임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람이 가까이 사래의 계획을 들은 후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했으니,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사래가 화가나 불만을 토해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심판을 맡기려 합니다. 다음 절에서 드러나듯이, 이는 아브람이 행동하게 만드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So Abram said to Sarai, "Indeed your maid is in your hand; do to her as you please." And when Sarai dealt harshly with her, she fled from her presence.

To properly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I need to provide a little cultural background. The issues relate to Hagar's status within the family. Hagar had originally been Sarah's maidservant. However when she became Abram's second wife she was raised in status. But under the hierarchy or ranking of that time she retained at the slightly lower status of a secondary or "slave" wife. She never achieved parity of status with Sarai. This is in essence what Sarai is asking of Abram.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Hagar? Is she your wife or does she still belong to me as my maid?

Abram tells Sarai exactly what she wanted to hear. She remains your maid. Now, under the rules of the day she could be returned from wife to slave status. This meant she could be treated in the way seen fit for a slave. Abram was quite right (legally speaking) to say that Sarai could do to her as she pleased. However she was protected from being sold. Since she carried the master's child she had to remain within the household.

Sarai treated Hagar gently and with tender loving care. Sadly, this is not what she did. Moses tells

us that she treated her harshly. The bible does not provide us with the specific details but we can speculate. I imagine she was given all the worst daily tasks to do. Perhaps she was even deprived of food or given only the scraps to eat. The result of all of this was predictable. Hagar ran away presumably with the intent of returning to her home in Egypt.

What we may wonder did Abram feel about all of this. Abram might not have anticipated quite how harsh Sarai's response to Hagar would be. Scripture doesn't specifically reveal all the emotions in play. Perhaps Abram was feeling guilty for agreeing to the plan in the first place. Sarai certainly seems to be emphasising the fact that he "embraced" this woman, even though it was at her urging. Whatever the case it does not present Abram in a very positive light.

Let us find out what happened to Hagar.

6 아브람이 □□□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 하갈을 학대하였다니 하갈이 □□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하갈의 가족 내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갈은 원래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아브람의 두 번째 아내가 되면서 자유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계질 서상 그녀는 여전히 사라보다 낮은 자유, 즉 '노예 아내'("slave" wife)였습니다. 그녀는 사라와 동등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아브람에게 묻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하갈의 현재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당신의 아님□□□, 아니면 여전히 제 여종입니까?"

아브람은 정확하게 사라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의 여종이라." 당시 법에 따르면 하갈은 언제나 아내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즉 노예 취급을 받게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사라에게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갈을 다룰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당시에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을 다른 곳에 팔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므로 그녀는 그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 □□□□□□ □□□□ . 슬프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언급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고된 일들을 했을 것이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남은 음식만 먹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람은 사래가 하갈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감정을 모두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람은 처음부터 사래의 제인에 동의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 □□ □□□ □□□□□ □□□ "품에 둔" □□□□□□ □□□□. 어쨌든 이 사건은 아브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히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 Now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er by a spring of water in the wilderness, by the spring on the way to Shur. 8 And He said, “Hagar, Sarai’s maid,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She said, “I am fleeing from the presence of my mistress Sarai.”

As we saw at the end of the previous verse the harsh treatment inflicted on Hagar by Sarai has forced her to flee. Here we find her resting by a spring somewhere in the wilderness on the way to Shur. Where you may be wondering is that? To be absolutely truthful we can't be "sure." Sorry, I couldn't resist that pun. The best guess is that it is somewhere in the northern Sinai on the way towards Egypt. It is here that she is going to have a most marvellous encounter. We are told that she was found or visited by the "Angel of the Lord."

This is the first of 48 references to “the Angel of the LORD” that we find in the Old Testament. On some of those occasions “the Angel of the LORD” is referring to deity. It is God appearing in human form in order to interact with human beings. In other places when we read about “the angel of lord” is referring to the appearance of an angelic messenger sent by God. Which kind of messenger is it here, is it an angel or is it God?

On this occasion Hagar was visited by God Himself. This was a pre-incarnate appearance of the 2nd person of the trinity; The Lord Jesus Christ. Moses supplies us with a number of clues which make it quite clear this was not one of God's created angels. For one thing, the visitor identified himself as God (verse 11). God spoke through many messengers in the Old Testament, but none of them ever called himself God.

It's also worth us pausing for a moment to think through the deeper implications of this encounter. Think of all the mighty and "important" men who had existed prior to this time. For example in our studies we have read about Noah, Enoch, Nimrod and Abram. The Lord Jesus did not appear to any of these great men. Instead He makes his very first appearance to a woman. A single mother-to-be who had a pride problem and who was running away from a bad situation. It underscores for us that we worship a God who loves and cares for the unlikely, the downtrodden and the unlovely. Let's get back to the text.

The Lord Jesus has two pertinent questions for Hagar. Before we look at the questions it is important to appreciate that the Lord is not asking them because He Himself seeks knowledge. He already knew the answers. Rather the questions are for Hagar's benefit. To make her stop and reflect on what she was doing and why.

The first question concerns where she has come from. The second question deals with where she is going. As we know she has fled from Abram's household in order to escape the mistreatment of Sarai. Hagar, you will note answers the first question but not the second. Does this mean she was wandering aimlessly without a destination in mind? It's certainly possible. Perhaps in her haste to flee she had not decided where to go.

Let us continue and see what else the Lord Jesus has to say.

**7 여호와와의 광야의 곁 곧 술 길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여주인의 파하여 도망하나다**

여기서는 하갈이 수르 Shur 로 가다가 광야 어딘가의 샘 옆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정확히 어딘지 "확실히 sure-Shur" 수 없습니다. (좌송, 말장난 pun 입니다) 아마도 이집트로 가는 길목인 시나이 산 북쪽 어딘가로 추측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갈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여호와와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와 사자"라는 표현이 48 번 나오는데 이 구절이 그 중 첫 번째입니다. 어떨 때는 "여호와와 사자 the Angel of the LORD"가 신성 deity 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the angel of lord" 즉,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보내신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와 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제2 위 곧 성육신 하기 이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여러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째, 이 방문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혔습니다(11 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만남의 더 깊은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노아, 에녹, 니므롯, 아브람 등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인물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교만했던 그녀는 힘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는 미혼모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단게 해 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갈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주님께서 답을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들은 하갈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이유를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두 번째 질문은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갈은 사래의 학대를 피해 아브람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갈은 첫 번째 질문에는 답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급한 마음으로 집을 나온 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Return to your mistress, and submit yourself under her hand.” 10 Then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I will multiply your descendants exceedingly, so that they shall not be counted for multitude.”

The Lord's command here is direct and to the point. Hagar is to give up on her attempt to run away and return to Abram's house. That was bad enough from Hagar's vantage point, but there was more to it. She was to willingly repent and submit herself to Sarai's authority. What a thought for this prideful and strong-willed woman. To have to return, confess that you had been wrong in your attitude and disrespect, and then live under a mistress who had treated you harshly. This most definitely would not be an easy thing for Hagar to do.

Then the Lord Jesus offers a prophecy concerning Hagar and her seed. Her descendants will multiply exceedingly. They will be so numerous that they cannot be counted. This has certainly come to pass. Hagar's son Ishmael is the father of the Arab people. According to Wikipedia there are between 400-450 million Arabs living in the world today (between 5-5.5% of the global population).

The prophecy however does not end there. Jesus also has something to say about her unborn son.

Let's read on.

9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주님의 명령은 단도직입적이고 명확합니다. 하갈은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브람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일은 하갈에게 충분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개하고 사래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교만하고 고집 센 이 여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태도와 무례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학대했던 여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니, 하갈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님은 하갈과 그녀의 자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녀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 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에는 4 억에서 4 억 5 천만 명의 아랍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5~5.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갈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 And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Behold, you *are* with child,

And you shall bear a son.

You shall call his name Ishmael,

Because the LORD has heard your affliction.

12 He shall be a wild man;

His hand *shall be* against every man,

And every man's hand against him.

And he shall dwell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

The Lord now pivots to speak about the child she is carrying. This is the first unborn child to be named by God in the biblical text. Others who will later appear in this category include Isaac (Gen. 17:19), Jesus (Matt. 1:21, Luke 1:31), and John the Baptist (Luke 1:13). I mention this fact here because those who support abortion often claim that what's inside a woman's womb is not yet a person. It's a fetus, it's just a clump of cells. That's NOT what it is. The bible tells us that it is a human being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A person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as such is worthy of dignity and respect.

Jesus here tells Hagar that she is carrying,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She is to name him Ishmael. The name Ishmael means "God hears" or "God will hear." It is the combination of two Hebrew words. The first derives from the root "*shama*" meaning to "hear or listen." The second word is "*El*" meaning "God." He is to be given this name because God heard Hagar's cry and stepped in to help. However it's not all good and positive. Ishmael is to be an interesting character. Jesus tells Hagar four things about the nature of her future son. Let us look at each in turn.

First we are told that he will be a "wild man." In some translations (ESV, NIV) he is described as being a "wild donkey." Now, that's not a very nice way to describe someone. Would you like to be referred to in such terms? Is God indulging in some cruel name calling here? No, He is not. The meaning is that Ishmael will live a nomadic or roaming lifestyle. He and his descendants will constantly move around the desert and seldom settle in one place for very long. Even today the Bedouin tribes live this kind of life.

Second we are told that "His hand shall be against every man." This naturally means that he will be an aggressive or combative kind of person. When he meets others as he roams about his tendency will be to attack them.

Third we read that "every man's hand will be against him." This is a reference to the principle of retaliation. His aggressive attitude and tendency to attack others will result in retaliation. Those he attacked will regroup and then come against him.

Fourthly we are informed that he "shall dwell in the presence of his brethren." This phrase carries a double meaning. On the positive side it means that Ishmael and his descendants will live in proximity to their brothers. Those to whom they have a familial connection. So in Ishmael's case he will live alongside his half-brother Isaac. However it also carries the idea of a sense of grievance or hostility. They may live alongside their brothers but they will carry a level of anger and hostility towards them and not peace.

So in summary perhaps its not the most encouraging report to get about your yet to be born son.

Let us continue.

11 여호와와의 □□□□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 중에 물나귀 같이 되라니 그의 손이 모든 □□□□ 차겠고

모든 □□□□ 손이

그를 찰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 하나라

이제 주님은 하갈이 임신한 아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첫 번째 태아입니다. 이 후에도 아삭(창세기 17:19), 예수(마태 1:21, 누가 1:31), 세례 요한(누가 1:13) 등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흔히 여성의 자궁 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 □□ □□□□ □□□□ □□□□.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존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갈이 이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아스마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God hears)" 또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God will hear)"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두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들다" 또는 "경청하다"라는 뜻의 어근 "*shama*"에서 유래했고, 두 번째 단어인 "*엘(El)*"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주셨기에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좋은 소식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아스마엘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하갈에게 장차 태어날 아들의 성격에 대해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가 "들나귀(wild man)" 같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어떤 번역본(ESV, NIV)에서는 "wild donkey"로 묘사합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면 그런 식으로 불리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아스마엘이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거라는 뜻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사막을 끊임없이 이동하며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베타단족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스마엘의 성격이 공격적이고 호전적일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유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공격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찰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복의 원리를 언급합니다. 아스마엘의 공격적인 태도와 성향은 보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에게 공격당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 그를 찰 것입니다.

넷째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형제들, 즉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살 것입니다. 따라서 아스마엘의 경우, 그는 이복형제인 아삭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원망 또는 적개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살겠지만, 분노와 적개심을 품은 채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에 대한 소식이 그다지 고무적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3 Then she called the name of the LORD who spoke to her, You-Are-the-God-Who-Sees; for she said, "Have I also here seen Him who sees me?" 14 Therefore the well was called Beer Lahai Roi; observe, it is between Kadesh and Bered.

Following Jesus' words we read about Hagar's response. Despite the rather negative conclusion to the prophecy she speaks in glowing terms of God. She names the Lord that spoke to her proving that she recognised that the speaker was God Himself. She had not been conversing with an angelic being. Hagar names God as being "the God that sees." In Hebrew, this is "*El Roi*" which literally translates as, "the God of Seeing" or "the God of Sight." Thomas Constable in his commentary notes that this may be the only time in scripture that a human being confers a name upon God.

She refers to God in this way because she recognises that He has been seeing her and now she has seen Him. It also carries the idea of care and protection. She understands that God has been looking out for her.

It's interesting when we reflect on both names that are recorded in this passage. Ishmael means "God hears" and El Roi means "God sees." It's a good reminder to us that we worship a God who sees and hears all.

The final piece of information given to us here is the precise location that this meeting took place. It occurred next to a well that was later called Beer-lahai-roi. This means "the Well of the Living One Who Sees Me." It stood therefore as a memorial to what had taken place between Hagar and the Lord. Later on in biblical history this would become the home of Isaac (Gen. 24:62, 25:11).

The exact location is given as being between Kadesh and Bered. We know that Kadesh is Kadesh Barnea, but as for Bered, this is the only mention of this place in Scripture. This means that the exact location is unknown except that it was in the vicinity of the Sinai/Negev border.

Let us conclude our study today by looking at the following verses.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막으며 하갈이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갈이 어떻게 여사라임을 보았는지 사라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함이라 14 **아래므로 그 우물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라
 예수님의 말씀에 하갈이 반응합니다. 예언의 내용이 다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이름을 밝히며,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천사와 대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the God that sees" 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El Roi" 인데, 문자 그대로 "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토마스 콘스터블은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이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유일한 경우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셨고, 자기도 하나님을 보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계셨음을 아파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두 이름, 이스마엘(Ishmael)과 엘 로이(El Roi)를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고, 엘 로이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진 정확한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나중에 브엘라해로이 Beer Lahai Roi 라고 불린 우물 옆이었습니다. 브엘라해로이는 "the Well of the Living One Who Sees Me"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우물은 하갈과 주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장소였습니다. 훗날 이곳은 아삭의 집이 되었습니다(창세기 24:62, 25:11).

이 우물의 정확한 위치는 가데스Kadesh 와 베렛Bered 사이에 있습니다. 가데스는 가데스 바르네아Kadesh Barnea 로 알려져 있지만, 베렛은 성경에서 이 구절 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시나이와 네게브 사막 경계 부근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5 So Hagar bore Abram a son; and Abram named his son, whom Hagar bore, Ishmael.
16 Abram was eighty-six years old when Hagar bore Ishmael to Abram.

In obedience to the Angel of the Lord Hagar returned to Abram and Sarai. Unfortunately nothing is recorded about this reunion. I'm sure there were smiles, hugs and tears all around! What must Abram and Sarai have thought when Hagar told them about her divine encounter and all that the Lord had revealed. We are left to guess.

We know that Sarai's relationship with Hagar never really became warm. It always remained rather frosty.

By the time we get to chapter 21 we will see her demand that Abram cast her and Ishmael out of the house. That is a story we will come to in due time.

When the baby is born Abram does indeed name the child Ishmael. It would have reminded both Abram and Sarai that God was still listening. He had not forgotten them and the promises He had made. All this took place we are told when Abram was 86 years old.

It's almost time to conclude but before I do I wanted to provide you with your useless fact of the day. As I was preparing this sermon I began to think about Abram's age. I wondered who the oldest recorded father was. Are you ready to be amazed? According to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who have verified it as being true the record is held by an Australian man called Les Colley. In 1988 the then 92-year-old Colley had a son named Oswald with his of course much younger wife.

See, wasn't that fact absolutely fascinating.

